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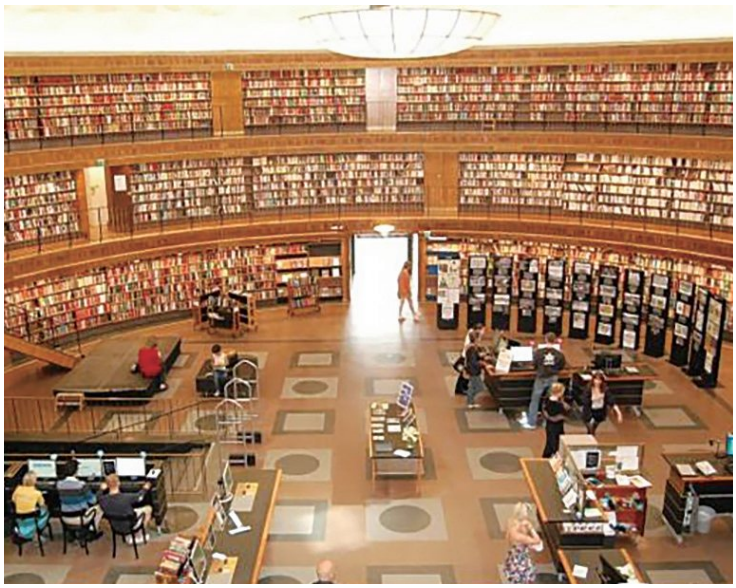
도서관 가는 길

경남공공도서관 종합소식지

통권 제41호 제26권 2호

경남대표도서관
Gyeongnamdaepyo Library


KONGL. BIBLIOTEKET









도서관 가는 길

경남공공도서관 **종합소식지**

통권 제41호
제 **26**권 **2**호

발행월
2019년 9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

발행등록번호
76-6481183-000001-09

편집·인쇄
(주)경남신문사

경남대표도서관
Gyeongnamdaepyo Library

CONTENTS

사람

04 독서칼럼
– 미래를 향한 디딤돌, 도서관

06 사서 이야기
– 도내 사서 이야기

08 사서 추천도서
– 아동 추천도서
– 청소년 추천도서
– 성인 추천도서
– 독서축제 도서

도서관

16 하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26 도서관 소식

32 해외도서관 연수기
– 스웨덴, 핀란드 도서관 연수

기획코너

34 독립출판물
–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38 글마당
– 도서관에서 즐거운 경험

43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중국인과 중화사상

미래를 향한 디딤돌, 도서관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이경희** 소장

공공도서관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문화의 수호자로서, 우수한 자료수집, 독서환경 개선, 신규 도서관 건립 등의 독서기반 구축에 힘써 왔다.

예전에는 단순히 책을 보고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았고, 도서관은 자료 수집과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도서관과 사서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려한 영상매체와 즉각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전자기기에 책과 도서관이 삶의 일부분에서 그 영역을 잃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시민들 앞에 다가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다행히도 요즈음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서관을 알리고 이제 "책"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책과 도서관과 시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과거 도서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전자책, 3D체험관,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미래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서 스스로도 사례 연구와 고민을 통해 도서관이 시민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고 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평소 우리가 기억하는 정적인 사서가 아닌 문화의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를 지켜며 과감히 돌진하는 잔다르크의 모습과도 같다.

창원시 또한 2019년 '책 읽는 창원 선포'를 시작으로 전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했던 개별적인 행사의 사례를 분석하고 도서관 중심의 활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2일~13일 양일간 "창원 북-페스타" 개최도 그 일례로 볼 수 있다.

도서관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꿈을 실현하는 곳으로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서들은 책과 시민의 인연을 이어주는 월하노인이 되거나 때론 검 대신 책을 들고 전진하는 문화전쟁터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사서 이야기

1. 도서관 일을 하며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찬 순간은 역시 이용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는 칭찬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지막에 결과까지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마다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수업에 반영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이용자분들이 건네주시는 격려나 수업진행에 대한 칭찬들을 들을 때가 도서관 일을 하며 가장 보람찬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당연히 이용자 분이 만족을 표하셨을 때이다. 담당업무 중 하나가 프로그램 진행이다 보니 매번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는데, 참가자분들이 작성해주신 '너무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등과 같은 한 문장들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 으레 하는 말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하늘로 증발해버리는 마법과 같은 말로 느껴진다.

맡은 업무마다 즐겁고 보람되었지만 그중 가장 재밌고 가슴 설렌 순간은 평소 좋아하는 책의 작가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림감상도 배경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되듯이 작가가 어떤 생각, 의도로 글을 썼는지 들으면 온전한 책읽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좋은 분을 초청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린이 이용자가 어린이 책은 어디서 읽냐고 물어왔습니다. 마침 저도 어린이관을 가는 길이라 같이 가자고 말을 건넸고 그 이용자와 함께 어린이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용자 분이 "선생님, 책은 제 친구예요. 저는 책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넘겨요."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이용자의 순수한 눈동자가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용자 분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사서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보다는 어린이 자료실에 근무할 때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인데도 한 번씩 궁금하고 보고 싶어지는 아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도서관으로 견학을 와서 자유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는데 유독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둘째가 있어 저희 아이도 밖에 나가면 저럴까 싶어 데리고 무릎에 앉혀 책을 읽어줬습니다. 여러 권 읽고 그제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올 때는 동생이랑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꼬마 친구가 약속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아이 엄마 말씀을 빌리자면 선생님과 약속했다고 꼭 가야한다고...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흘려 넘겼는데.. 그날 정말 뭉클하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한다는 것이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제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자와 참가자들의 토크시간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했습니다. 게다가 모집 마감 전날까지 참가신청이 너무 없어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하나하나 방문해 협조요청을 드리고, 참가대상 연령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홍보물도 직접 나눠드리며 발로 뛰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행히 당일 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진행은 아직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는 현재 장애인자료실의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고 연속간행물실 수서 및 구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남자료실의 지원과 납본센터 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 개최하고 도서·비도서·희망도서 등 자료 수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원부 관리 및 도서 정리용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료실 및 다문화자료실 운영, 정규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 강사공모 관련 업무 전반(강사선정위원 위촉 및 관리), 책바다, 책나래 서비스 운영, 기증도서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향후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서관마다 위치한 지역사회나 특성이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도서관은 전 연령의 사람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 모두에게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획이나 사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도서관이 있으니까 가는거다'라는 건물로의 도서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도서관으로 '찾아올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공간', '조용히 책 읽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공부와 독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독서와 학습뿐만 아니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교류, 협업의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이러한 일을 해나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자유로운 한마디



도서관 일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서로서의 직무이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이든 제가 부족함 없이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항시 노력해야 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도서관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기 전에는 도서관 하면 참 조용한 곳이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조용한 도서관 뒤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만큼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서 선생님들과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고군분투 중엔 전국의 모든 사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서 추천도서

아동 추천도서



단어수집가 글쓴이_ 피터 레이놀즈

|추천 사유| 기분 좋은 말, 뜻을 모르지만 근사하게 들리는 말 등 세상에 존재하는 낱말들을 모으는 단어 수집가 제롬. 어느 날 차곡차곡 쌓아둔 낱말책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애써 분류해놓았던 낱말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린다. 망연자실하다 문득 헛된 구름, 침묵의 오케스트라 등 한 번도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란히 붙은 걸 본 제롬은 낯선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에 푹 빠진다. '익숙'과 '당연'에서 벗어나 주인공을 따라 단어끼리 이어지고 부딪치며 발생하는 놀라운 마법을 좇다보면 어느새 생각이 빵빵 팽창하는 걸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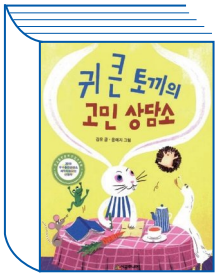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김혜진**

아기 고라니 눈꽃 글쓴이_ 원유순

|추천 사유| 작가가 실제 겪었던 아기 고라니와의 사연을 바탕으로 쓴 글로 아기 고라니가 가족들을 무사히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준우와 아기 고라니 눈꽃과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추천인| 고성동부도서관 **박수미**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글쓴이_ 김유 그림_ 윤예지

|추천 사유| 고민과 걱정은 어른들에게만 있을까? 아이들의 고민도 성인들의 고민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 할 수있다. 이 책에선 늘 혼자인 토끼가 귀가 커서 잘 들을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고민 상담소를 열고 동물친구들의 고민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에 맞는 '마음 처방전'을 처방해주는 책이다.
우리 아이들의 실제 고민거리들이라 더욱 공감이 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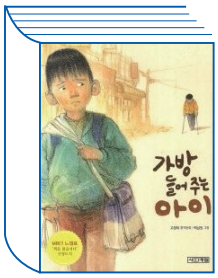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김은경**

안전 생활 지침서 : 화재 글쓴이_ 박승균

|추천 사유| 현직 소방관이 알려주는 화재에 관한 모든 것. 이 책의 저자는 화재 현장에서 직접 불을 진화하는 현직 소방관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화재의 예방법, 장소별 대피방법, 상황별 긴급대처법 등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읽으며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박소정**





가방 들어주는 아이 글쓴이_ 고정욱

|추천 사유| 장애로 인해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는 영택이와 그런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주게 된 석우,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과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애인의 고통이 아닌 장애인의 친구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여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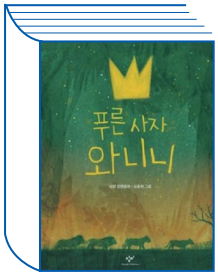
|추천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남경연**

파도야 놀자 글쓴이_ 이수지

|추천 사유|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글자가 없다는 것이다. 바닷가에 놀러 간 소녀의 하루를 오롯이 흰 바탕에 검정 먹 선, 파란색 물감 채색을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한 그림책으로, 파도를 대하는 소녀의 두려움, 즐거움, 기대, 교감 등 심리변화를 글씨가 아닌 그림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읽는 재미를 주는 도서이다.

|추천인|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박민지**





푸른 사자 와니니 글쓴이_ 고정욱

|추천 사유| 아프리카 초원에서 펼쳐지는 사자 와니니의 모험을 그린 동화. 다른 사자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어린 사자 와니니의 성장기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추천인|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김슬기**

펜으로 만든 괴물: 메리 셸리는 어떻게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을까요?

글쓴이_ 린 풀턴

|추천 사유| 아주 유명한 공포소설 프랑켄슈타인이지만 그 저자인 메리 셸리가 여성 작가를 좋지 않게 보는 당시 세태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자라나는 여자 어린이들에게 앞서간 여성 위인의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다.

|추천인| 거제시립옥포도서관 **황초롱**



청소년 추천도서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글쓴이_ 나쓰카와 소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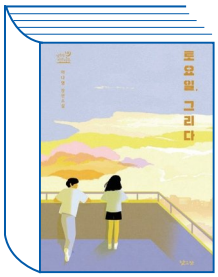
|추천 사유| 책을 대하는 다양한 군상을 통해 책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함께 운영하던 고서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린타로 앞에 말하는 고양이가 나타난다. 책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양이의 부탁에 린타로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돕기로 한다. 둘은 책을 '가두는 자', '자르는 자', '팔아치우는 자'가 있는 세 가지 미궁과 의문의 미궁을 향해 책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이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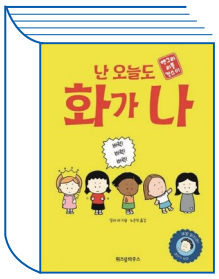
토요일, 그리다 글쓴이_ 이나영

|추천 사유| 언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자신의 삶이 아닌 언니의 삶을 대신 살아가려고 하는 동생의 이야기로 주위에 손을 내밀어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변해가는 모습과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준다.

|추천인| 고성동부도서관 **박수미**



난 오늘도 화가 나 글쓴이_ 릴라 리, 노은정 옮김



|추천 사유| 가부장적인 한국계 집안에서 자란 소녀 '킴'을 중심으로 개성 강한 5명의 소녀들이 등장한다. 까칠한 킴은 일상 속에서 늘 화가 나 있다. 명확한 이유도, 언뜻 봐서는 맥락도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상 속에서 차별을 항상 느끼며 지내는 '킴'은 그 분노가 내재되어 쌓여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사춘기 소녀들과 꼭 닮은 책 속 5명의 '앵그리 리틀 걸스'를 통해 여러 형태의 분노와 표출을 보여 주며, 촌철살인 같은 대사로 코믹함을 담고 있다. '앵그리 리틀 걸스'를 통해 자신을 반추해 보며 스스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박찬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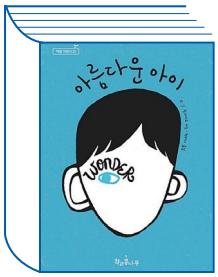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글쓴이_ 황영미

|추천 사유| 어른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사회생활을 하듯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그 안에서 예비 사회생활을 한다. 폐쇄적인 공간 학교에서 공부, 식사, 청소 심지어 휴식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마주할 수 있는 책이다. 외갓집 어항에서 본 체리새우처럼 주인공 다현도 탈피의 성장과정을 거치는 애틋한 성장기의 이야기입니다.

|추천인|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박민지**



아름다운 아이 글쓴이_ R. J. 팔라시오



|추천 사유| '평범'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일까. 〈아름다운 아이〉는 '평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안면 기형으로 태어난 어기는 27번의 수술을 이겨냈다. 스스로를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 어기는 늘 헬멧을 쓰고 다닌다. 헬멧을 벗고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부모님은 어기를 학교에 보낸다. 가족이 전부였던 어기의 세상은 친구, 선생님, 학교로 넓어진다. 같은 상황을 어기, 친구들, 누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서술방식도 꽤나 흥미롭지만,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문장들이 공감됐다. 〈아름다운 아이〉는 내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자신만의 생각이 생기고 기준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임지영**

어쨌거나 스무 살은 되고 싶지 않아 글쓴이_ 조우리



|추천 사유| 제12회 블루픽션상 수상작. 고달픈 청소년을 위한 소설로 여섯 아이들의 이야기가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소년들의 흥미로운 삶을 다룬다.

|추천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지연**



열일곱의 맛 철학 글쓴이_ 정수임

|추천 사유| 청소년에게 쉽고 재미나게 철학으로 접근하는 철학 에세이.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먹거리를 소재로 사유의 힘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일깨워 준다.

|추천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지연**

토닥토닥 마음 톡 글쓴이_ 웰시



|추천 사유| 십대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림 에세이.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고민을 귀여운 그림과 따뜻한 조언으로 위로하는 책. 지금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준다.

|추천인|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김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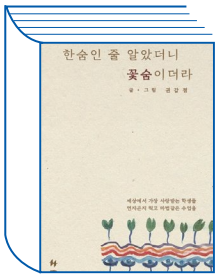


빨간 구두당 글쓴이_ 구병모

|추천 사유| 누구나 아는 옛날 이야기를 소재로 철학적 의미를 담아 청소년에게 쉽게 전달하는 책. 또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로 가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올바른 현실 인식에 도움을 준다

|추천인| 거제시립옥포도서관 **황초롱**

성인 추천도서



한숨인 줄 알았더니 꽃숨이더라 글쓴이_ 권갑점

|추천 사유| 함양군에 있는 한 중학교의 성인문해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험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교육에 참여한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은 교실보다 논밭이 학교였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꽃숨반' 학생들이 한글을 익히고, 글 짓는 이야기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어우러져 한숨인 줄 알았던 인생에 꽃숨을 불어넣는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가시나들'이라는 주말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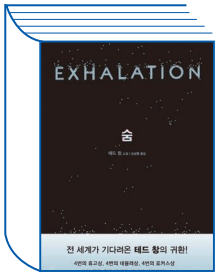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이창훈**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 과학자입니다 글쓴이_ 바버라 립스카, 일레인 맥아들

|추천 사유| 뇌 연구자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뇌의 변화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추천인| 고성동부도서관 **박수미**





숨 글쓴이_ 테드 창, 김상훈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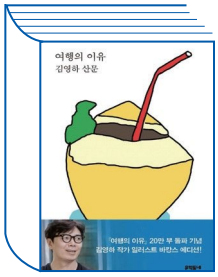
|추천 사유| 최고의 SF에 수여되는 모든 상을 석권하며 전 세계 2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작가, 테드 창의 두 번째 작품집이다. 2002년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출간한 이래 17년 만에 펴내는 소설집으로, 로커스상, 휴고상, 영국과학소설협회상을 수상한 표제작인 '숨'을 비롯해 총 9편의 중·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차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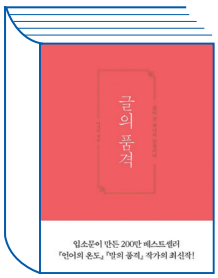
여행의 이유 글쓴이_ 김영하

|추천 사유| 이 책은 여행지를 다녀 온 경험을 풀어낸 여행담이 담긴 여행서적이라기보다는 글쓰기, 타자와 나,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되어 가는 '여행'에 대한 사유적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한 TV프로그램 〈스페인 하숙〉에 나오는 산티아고 순례자들을 보면, 때론 여러 사람과 함께 걷고 쉬기도 하고 때론 오롯이 혼자 걷기도 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 헤어짐은 어떤 형태로든 오기 마련이지만, 이를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행자와 같이 지구에 잠시 들렀다 어떤 순간을 함께 동행하여 여행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는 작가의 글이 인상적이다. 읽는 독자에게도 여행이란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책이라서 추천한다.

|추천인|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박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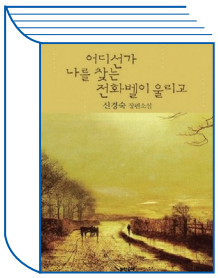
글의 품격 글쓴이_ 이기주



|추천 사유|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등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이기주 작가의 신작이다.
'깊이 있는 문장은 그윽한 문향을 풍긴다. 그 향기는 쉬이 흩어지지 않는다. 책을 덮는 순간 눈앞의 활자는 사라지지만, 은은한 문장의 향기를 독자의 머리와 가슴으로 스며들어 그곳에서 나름의 생을 이어간다.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꽃으로 피어난다.'
글의 품격 서문에서 작가가 쓴 글이다. 작가의 책 속의 문장이 바로 그렇다.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가 내 머리와 가슴으로 스며드는 느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이다. 책을 읽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쓸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이라서 도서관에 희망신청하여 읽게 된 책이지만 서문을 읽고나서 바로 이 책을 구입했다. 한 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이 책을 음미하며 읽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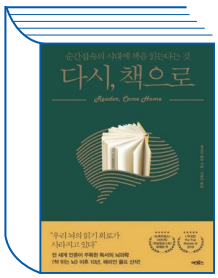
|추천인|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이민정**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글쓴이_ 신경숙



|추천 사유| 우울했던 시대를 살던 네 젊은이의 슬픈 사랑과 어두운 시대상이 녹아 있는 재미있지만 우울한 책.

|추천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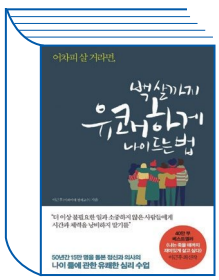


다시, 책으로 글쓴이_ 매리언 울프

|추천 사유| 전자매체가 점차 세력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인쇄매체 독서의 중요성을 설파한 책. 특히 현대 사람들이 디지털 기반 읽기에 익숙해지면서 독해력과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천인| 거제시립옥포도서관 **황초롱**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글쓴이_ 이근후



|추천 사유| 50년 넘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한 저자가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을 담은 책.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생의 시련을 일상의 사소한 행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며,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지침이 되어주는 책.

|추천인|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김슬기**

독서축제 도서

경상남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찬호 | 블랙피쉬 | 2018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 21세기북스 | 2018



칼날 위의 역사
오찬호 | 블랙피쉬 | 2016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 문학동네 | 2018



과학책은 처음입니다만
이정모 | 사월의 책 | 2018



도깨비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박하익 | 창비 | 2018



바람을 가르다
김혜온 | 샘터사 | 2017

창원시



아몬드
손원평 | 창비 | 2017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박현경 | 해외나무 | 2016

김해시



당신이 옳다
정혜신 | 해냄 | 2018

경상남도교육청



나는 소심해요
엘로디 페로탱 | 이마주 | 2019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 천개의바람 | 2018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 여유당 | 2018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금자 | 비룡소 | 2017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 나는별 | 2018



터널
헤게 시리 | 책빛 | 2018



행복한 줄무늬 선물
야스민 셰퍼 | 봄볕 | 2018



곰팡이 수지
레오노라 라이틀 | 스콜라 | 2018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 창비 | 2018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 비룡소 | 2018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강민경 | 현암주니어 | 2018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 논장 | 2018



표절 교실
김해우 | 크레용하우스 | 2018



까칠한 아이
남찬숙 | 대교북스주니어 | 2018



나이 도둑
정해왕 | 해와나무 | 2018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옹, 피에르 라비
한울림어린이 | 2018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드 고메스 세르다
풀빛미디어 | 2018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 비룡소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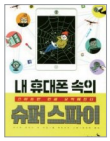
리얼 마래
황지영 | 문학과지성사 | 2018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다니카와 슌타로, 국제앰네스티 책빛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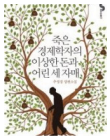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룬드베리 | 산하 | 2018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 스콜라 | 2018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서의동 | 너머학교 | 2018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 돌베개 | 2017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펀 | 뜨인돌 | 2018



꿀벌과 시작한 열일곱
모리야마 아미 | 상추쌈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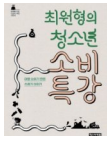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 자음과모음 | 2018



왜 언론이 문제일까?
박영흠 | 반니 | 2018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 아르테 | 2018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 특강
최원형 | 철수와영희 | 2017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왼쪽주머니 | 2018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김연숙 | 천년의상상 | 2018



당신이 옳다
정혜신 | 해냄 | 2018



마녀체력
이영미 | 남해의봄날 | 2018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 현대문학 | 2018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 블랙피쉬 | 2018



유머니즘
김찬호 | 문학과지성사 | 2018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류승연 | 푸른숲 | 2017



시가 있는 바닷가 어느 교실
최종득 | 양철북 | 2018



괘락독서
문유석 | 문학동네 | 2018

하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경남대표도서관

행사
「이어라 경남의 책」 선정도서 선포식 9월 3일 13:45 / 대강당

박준 시인과의 만남, 정재승 교수와의 만남,
신정철 인문학강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지원 강연 9월 29일 14:00 / 대강당

퀴즈 팡팡! 퍼즐 팡팡!, 함께 만드는 가족신문,
최다대출자 시상, 다다읽책 주간, 초지읽관, 결자해제 등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지원 강연 10월 13일 14:00 / 대강당

기타 프로그램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지원 공동전시
9월 9일 ~ 10월 31일 / 전시실 / 우주연구성과물 등 전시

문화강좌 프로그램
니하오 초보 중국어, 코딩수업, 영유아 책놀이, 다문화 책놀이,
나를 만나는 시간, 프랑스 자수, 친한 친구! 아두이노!,
다중지능교구, 체험형동화구연, 도란도란 역사이야기,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이야기, 독서심리상담사2급 자격증 대비과정

취약계층 프로그램
장애인 순회 특강
8월 13일 ~ 9월 3일 / 양산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거제시립도서관

행사
거제시 독서대전 10월 9일

작가와의 만남(북콘서트), 공연, 체험부스, 북마켓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학·과학교실 수양도서관

공모사업
하하호호 연극단 하청도서관

거제도서관

행사
김혜경 저자 강연 9월 27일 10:00 「하브루타 질문 독서법」

평생학습프로그램
책놀이지도사자격증반(3급), 감성수채화, 서양미술사,
영어동화랑놀자, 어린이역사교실 9월 5일 ~ 11월 21일

인문학프로그램
알면들리는국악이야기
9월 3일 ~ 10월 8일 매주 (화) 10:00 / 지하시청각실

별밤도서관프로그램
명화산책 9월 4일 ~ 11월 27일 매주 (수) 19:00 / 1강좌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행사
고정욱 작가 강연 9월 18일 / 시청각실

길 위의 인문학
9월 19일, 26일, 28일 / 시청각실 / 문학과 철학 속의 사랑

한心고전인문학당 문학기행

거창도서관

행사
찾아가는인형극장 10월 / 관내초등학교 / 안전을 주제

책이아파요 11월 / 관내초등학교 / 릴레이 파·오손 도서 전시

공모사업
선도도서관(책놀이) 'Book적 Book적 책 놀이터'

별밤도서관프로그램
만다라 아트테라피, 중국어 회화

자유학기제프로그램
9~12월 관내중학교

고성도서관

행사

책만 읽는 하루 9월 22일 9:00 / 고성도서관

동양 고전속의 인생네비게이션 9월 10일 10:00

시의 숲에서 길을 찾다 9월 21일 10:00 / 시청각실

최승필 작가 강연 10월 12일 14:00 / 시청각실

10월의 하늘 10월 26일 / 시청각실 / 과학자 들려주는 과학

우리는 다이노x탐험대 10월 1일~30일 /시청각실

인문학여행 영국여행, 독일여행

초등·중등 독서회연합 문학기행 11월중

소식지 딱지치기 대회 12월중 / 2층로비

연합독서토론회 12월중 / 세미나실

기타프로그램

도서관으로 소풍 가는 날
9월 ~ 12월(수) / 어린이자료실 / 오감만족 책놀이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운영
9월 19일 ~ 11월 29일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평생학습프로그램

**나를 깨우는 문학시간, 하오하오 중국어 회화,
수채 일러스트 캘리그라피2(기초+심화),
책놀이지도사 자격증반2, 우리 고장 탐방, 오감 책놀이,
꼼지락 도서관공작소, 책이랑 요리조리, 글쓰기 공작소**

남해도서관

행사

바래길 인문학 9월 4일 19:00 / 강좌실2 / 길현수 강연

어머니와 詩와 남해 북콘서트
9월 5일 14:00 /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 /
고두현시인·가수김현성

비눗방울 마술쇼 9월 28일 14:00 / 강좌실2

힐링꽃차 10월 16일 ~ 30일 14:00 / 강좌실2

남해도서관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11월 2일 / 각 자료실 / 36주년 생일떡 나눔 행사

남해화전도서관

행사

인형극 9월 28일 13:30 / 다목적홀 / 다문화, 안전교육

김해율하도서관

행사

강미애 작가의 1인극 공연
9월 25일 14:30 / 세미나실

길상효 작가 강연 9월 28일 14:00 / 세미나실

과학자들 재능기부 과학공연
10월 26일 14:00 / 세미나실

장석주 시인 강연 11월 23일 14:00 / 세미나실



칠암도서관

행사

하바플라리움 만들기 9월 8일 14:00 / 자원봉사자실
하바리움 무드등, 볼펜 만들기

시민주도형 재능기부 '청바지 리폼' 특강
9/4~25 10:00 / 자원봉사자실

북큐레이션 코너
9월 10일 ~29일 / 인문학자료실 / 예술특성화 자료

그림책 원화 프린팅 전시 9월 16일 ~ 29일 / 1층 로비
'궁디팡팡' 외 2책

「마음 실험실」 이고은 북토크 9월 22일 14:00 / 시청각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실험실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 10/5~26 10:00 / 시청각실
독립출판 알기! 독립출판 해보기!

김해도서관

행사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강연 9월 20일 / 구지봉실 / 5060세대

김달님 북콘서트 9월 21일 / 시청각실 / 정말로 삶은 책이 되었다

우리동네 북큐레이터 9월 1일 ~ 29일 / 자료실

책 대출하니 이런 행운이? 9월 3일 / 1, 2층 자료실

행운의 룰렛을 돌려라 9월 28일 15:00 / 1층로비

신중년이여 도서관으로 모여라 9월 1일 ~ 29일

듬북드림, 토요체험놀이터, 레이저쇼, 트위터 대출 인증 이벤트, 나를찾아떠나는여행, 박상현의음식인문학

조원재 강연 10월 19일 14:00 / 시청각실

페이스북 10월 1일 ~ 31일 / 김해도서관 like it!

그림 한 시대의 삶과 이야기를 품다

선비가 사랑한 나무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10:00

김탁환 강연 11월 16일 15:00 / 시청각실

인형극 11월 9일 15:00 / 시청각실 / 환경사랑의 중요성

인형극 11월 23일 15:00 / 시청각실 / 정글북

토요체험놀이터

11월 9일 14:00 / 이야기동화방 / 걱정인형 만들기

인형극 12월 14일 15:00 / 시청각실 / 장화 신은 고양이

2020년 달력 만들기 12월 7일 14:00 / 이야기동화방

기타 프로그램

도서관 투어,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 숨은 책 찾기, 슬로리딩 슬로라이팅, 책이랑 놀아요, 5060인생극장, 이슈&테마도서 전시, 갤러리가야 전시, 아장아장 도서관 첫걸음, 오감만족 동화놀이터, 내 생애 독서 포트폴리오

BOOK소리 나는 도서관

노래로 배우는 English, 언니오빠 책 읽어주세요, 책소리 세상 소리, 리딩의 행복, Book소리와 함께하는 노년의 행복



진영도서관

행사

어영수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의 매력' 9월 28일 14:00

책놀이 도서관 9월 7일 10:00 「허허할아버지네 감나무」 책

자녀독서코칭 9월 3일 ~ 24일 매주(화) 10:00 / 시청각실

인형극 10월 13일 15:00 / 시 청각실

인문학특강 10월 11일 18:30 여행은 꿈(Dream)이다

책 읽어주세요 그림책 작가와 뮤지션 공연 및 체험

책놀이 도서관 10월 18일 10:00 / 문화강좌실

도서관 생일이에요 11월 3일 / 각 자료실 / 생일떡 나눔

책놀이 도서관 11월 9일 10:00 / 문화강좌실

책놀이 도서관 12월 14일 10:00 / 문화강좌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저·고학년)창의역사교실, 그림책과 함께한 동화나라, 부수로 배우는 생활한자, 감성반 스케치, 그램책 하부르타, 건강 수지침, 입이 트이는 영어

별밤도서관 및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감성 손글씨 캘리그라피, FunEnglish

기타 프로그램

FunFun 영어 스토리텔링, 생각주머니가 커지는 그림책 놀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동화 마을, 얼쑤절쑤 신나는 책놀이, 인지 UP 발달 UP 신나는 책놀이, 함께 듣는 한마당

인문학 프로그램

날라리 인문학, 時나브로, 연극아 놀자, 와글와글, 생각아 놀자

진영한빛도서관

행사

독서의 달 9월 2일 ~ 27일 / 진영한빛도서관

부모교육특강, 한 땀 한 땀 북커버 만들기, 보드게임과 함께하는 경제교실, 그림책 「스트로 베리 베리 팡팡」 원화 전시

개관 10주년 기념 도서관 축제 9월 20일 ~ 21일

이기호, 하선정, 정승각, 이순영 초청강연회, 샌드애니메이션 및 벌룬쇼, 도서관 스탬프투어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김해화정글샘도서관

행사

스토리텔링 매직쇼 9월 17일 18:00 / 어울림터

자산관리 인생설계 특강
9월 19일, 26일 19:00 / 어울림터

시민영상제 10월 16일 19:00 / 화정공원

별 볼일 있는 도서관(나도 피카소처럼)
11월 27일 19:00 / 어울림터 / 큐비즘의 이해

밀양도서관

행사

코스모스 화분케이크 만들기 9월 21일 / 3층 소극장

당신의 원픽(one pick)은? 9월 3일 ~ 29일 / 1층 로비

달콤한 그림책 퍼즐 9월 3일 ~ 29일 / 어린이자료실

독서의 달 행사 : 독서의 달에는 도서관이 쏜다, 도서관 이용 프리패스, 아트프린트 원화 전시,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밀양LIB.시네마, 책 콩콩 생각 쑥쑥, 독서불패 프로젝트 등

도서관에서 잡(JOB)는 나의 꿈! 나의 미래! 9월 4일, 11일

도서관, 인형극으로 놀자!(어흥! 호랑이 형님) 9월 18일 10:30

힐링 여행 인문학 9월 20일, 27일 15:30 / 3층 소극장

문화가 있는 날 9월 25일

힐링 여행 인문학 10월 4일, 11일 15:30 / 3층 소극장

도서관에서 잡(JOB)는 나의 꿈! 나의 미래! 10월 22일, 30일

도서관, 인형극으로 놀자!(어흥! 호랑이 형님) 10월 23일 10:30

문화가 있는 날 10월 30일

김겨울 작가 강연 11월 16일 14:00 / 3층 소극장

문화가 있는 날 11월 27일

도서관에서 잡(JOB)는 나의 꿈! 나의 미래! 11월 28일 13:00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서산책 11월 중

공모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길 위의 인문학 / 인생up! 나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

기타 프로그램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책으로 소통하는 세상, 동화구연으로 만나는 한글,
책 쓰기 좋은 날

평생학습 프로그램

책으로 놀자! 창의미술, 힘내라! 영어말하기, 고전읽기 「동의보감」, 찰칵! 스마트폰 여행사진, 실전! 중국어 회화, 소소한 행복 수채화, 우리말 우리글 사랑, 실버 힐링 노래교실

별밤도서관 프로그램

힐링 붓글씨, 감성 오카리나, 여행 일본어교실

하남도서관

행사

편해문 작가 강연 9월 7일 14:00 / 강좌실1

마술이 있는 인형극 9월 25일 18:30 '수탉이 왜이래?'

내 맘대로 페이스페인팅 9월 1일 ~ 29일 / 어린이자료실

마음을 다스리는 컬러링 9월 1일 ~ 29일 / 어린이·종합자료실

책 속으로 풍덩~ 하남도서관 출첵미션! 9월 1일 ~ 29일

독서 한마당을 잡아라!! 9월 1일 ~ 29일 / 어린이·종합자료실

가을에는 책과 함께 9월 1일 ~ 29일 / 어린이·종합자료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비밀의 책 9월 1일 ~29일 / 종합자료실

연체자 탈출! 9월 1일 ~29 / 어린이·종합자료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반 : 스마트폰 영상교실, 일본어 회화, 내 지갑 속 재테크
어린이 : 뚝딱뚝딱 생태 공예교실, 신나는 과학실험교실
영유아 : 종이나라 꼬마 피카소, 아빠와 함께 종이를 활용한 미술놀이

별밤도서관 프로그램

일반 : 초급 프랑스 자수, 초급 하모니카

취약계층 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 : 영어 그림책 읽어주세요
노인 : 정겨운 옛이야기
장애인 : 느리게 또박또박 나는 동화구연가

삼천포도서관

행사

작가와 함께하는 1인 공연 9월 21일 14:00 / 1층 모둠방

류승연 작가와의 만남 9월 28일 14:00 / 문화공연장

사천도서관

행사

김경희 작가 1인 공연극 9월 21일 14:00 / 시청각실

동양화에 이런 뜻이 있다고? 9월 28일 14:00 / 시청각실

책 쏙쏙 생각 쑥쑥 9월 22일 14:30 / 문화강좌실 / 책놀이

손 안의 미술관
10월 12일, 19일 14:00 / 시청각실 / 인문학 강연

가족인형극 10월 19일 11:00 / 시청각실 / 혹부리영감

멋지다! 우리 한글
10월 13일 14:30 / 문화강좌실 / 한지필통 만들기

신난다! 세시풍속놀이 11월 16일 14:00 / 문화강좌실

온 가족 마음공작소
12월 14일 14:30 / 시청각실 / 스탠드 만들기

기타 프로그램

아기랑 그림책 나들이 9월 1일 ~ 10월 13일 매주(일) 19:00

우쿨렐레 초급반 8월 21일 ~ 10월 16일 매주(수) 19:00

평생학습 프로그램

책놀이지도사 자격과정, 마술지팡이, 톡톡! 생활영어, 어린이 생태과학교실, 생각 쑥쑥 크리에이티브 팡팡!

의령도서관

행사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9월 28일 14:00 / 전금자 작가

내 꿈을 스피치하라! 10월 23일 / 의령여자고등학교 강당
「말할 수 있는 비밀」 한준호 강연

인형극 11월 16일 / 3층 다목적실

산청도서관

행사

신나는 예술 여행 : 아트북 작가, 도서관을 그리다, 꼬물꼬물 체험부스(마블링, 비눗방울, 캐릭터 만들기, 독립선언문 뱃지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국악 공연, 클래식&어쿠스틱 밴드, 마술 공연, 인문학 강의 9월 21일 13:00

3D펜으로 만드는 캐릭터 9월 7일 14:00 / 시청각실

책 만들기 전문가(지역출판사 대표) 강연 9월 18일 10:00

독서의 달 행사 : 이 책은 뭐지? 이 책은 또 뭐지?, 우리도서관의 북큐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연속간행물 나눔행사, 산청도서관 프로듀스 프로젝트 9월 1일 ~ 30일 / 각 자료실

할로윈 사탕등불 만들기 10월 12일 14:00 / 시청각실

재미만만 토요체험교실(자화상 만들기) 11월 9일 14:00

재미만만 토요체험교실(젤캔들 만들기) 12월 14일 14:00

평생학습 프로그램

감성 캘리그라피, 행복을 수놓다, 나를 만나는 사주심리, 사고력UP! 책놀이터

기타 프로그램

선도도서관 책 만들기 사업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취약계층 프로그램

산청에서 이렇게 살 줄 몰랐죠? 책 발간

공모사업

1도서관 1특성화 사업 시낭송의 이론 및 실제

양산시립도서관

행사

「별 낚시」 김상근 작가와의 만남 9월 8일 / 2층 문화강좌실

「산책을 듣는 시간」정은 작가와의 만남 9월 22일 / 관설당 강당

제4회 독서골든벨 9월 28일 /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양산영어도서관

행사

자녀 영어 독서지도 9월 22일 ~10월27일 매주(일) 10:30~12:30

양산도서관

행사

고전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의 지혜 9월 4일 10:00 / 시청각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9월 28일 10:00 / 시청각실

인형극(사윗감 찾아 나선 두더지) 9월 28일 14:00

꼼지락 꼼지락 동화랑 클레이랑 9월 22일 10:00 / 시청각실

책 빌리고 뽑기하고!, DVD쿠팡 이벤트, ONE BOOK,
독서퀴즈, 손끝의 책읽기 필사, 책 읽어주는 도서관,
오늘은 두 배로 Day

찰칵! 책 읽는 우리 가족 10월 1일 ~ 31일 / 어린이자료실

동화 속 캐릭터 팝아트 그리기 10월 20일 14:00 / 시청각실

경남독서사진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10월 15일 ~ 27일

행복한 책 나눔 10월 12일 ~13일 / 1층 로비

출판인과의 만남 10월 11일 10:30

ONE BOOK, 함께 토론하기 10월 5일 14:00 / 시청각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작가와의 만남 10월 26일 13:30

작가와의 만남(양창순) 11월 9일 14:00 / 시청각실

진주시립도서관

행사

경상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8월 20일 ~ 9월 10일 매주(화)

오브제극 9월 28일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두레마당

그림책 읽어주는 토요일 9월 7일 14:00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사람책(구병모) 9월 7일 14:00

책 읽어주세요 체험프로그램 10월 중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사람책(한의학교수 김경철)
10월 19일 / 진주시립서부도서관 시청각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사람책(헌책방지기 조경국)
11월 16일 / 진주시립서부도서관 시청각실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 진주 지역의 독립운동

진양도서관

행사

인형극 10월 19일 14:00 / 시청각실

나만의 브랜드, 힐링 책가방! 9월28일 14:00 / 강좌실1

대출반납 이벤트 9월 3일 ~ 27일 / 로비

온&오프백일장 '내가 장원!' 9월 3일 ~ 27일 / 각 자료실

테마가 있는 기획전시 '오! 진주' 9월 3일 ~29일 / 로비

이럴 땐 이런 책 9월 3일 ~ 27일 / 어린이자료실

인형극(인어공주) 10월 19일 14:00 / 시청각실

독서사진 콘테스트 '사소한유머' 10월 8일 ~ 23일

독서공방 '가족책, the original' 10월 12일 14:00 / 시청각실

엄마아빠와 달고나 10월 26일 / 어린이자료실

독서여행 컨시어지 가족독서단, the last 10월 26일 14:00

작가와의 만남(김찬호 작가) 11월 9일 14:00 / 시청각실

독서공방 '추억 돋는 독서달력' 11월 16일 14:00 / 시청각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근차근 프랑스 자수, 처음 만나는 어반스케치,
부모가 먼저 배우는 하브루타, 생명과학교실1, 2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묵연회(서예), 삼묵회(사군자), 보태니컬아트,
Flowerin 캘리그라피(캘리그라피) 등 4개 동아리

기타 프로그램

책이랑 놀아요
아이좋아 진양좋아
지역인문학센터

취약계층 프로그램

책놀이, 역할극 등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 치유인문학 : 내 마음을 만지다

별빔도서관 프로그램

음악으로 우리 아이 마음 읽기

고향의봄도서관

행사
어린이뮤지컬 공연(아기돼지삼형제) 9월 22일 14:00

내서도서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마산회원 및 내서도서관 / 저자 특강, 가족체험, 공연, 원화 전시 등 12개 행사

의창도서관

행사
박정희 작가 특강 9/21 14:00 / 다목적홀

문화강좌 프로그램
책으로 떠나는 서양미술사 여행, 서예 한문, 서예 한글, 손글씨 캘리그라피, 유아창의미술, 기초과학 실험교실, 영어동화로 풍덩, 유아창의미술, 독서 하브루타 포함 19개 강좌 운영 / 의창도서관, 명곡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 9월 / 마산회원 및 내서도서관 : 저자 특강, 가족체험, 공연, 원화 전시 등 12개 행사

「엄마의 첫 심리공부」저자 특강 9월 10일 10:30 / 시청각실

샌드아트&레이저&벌룬쇼 공연 9월 28일 14:30 / 시청각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등 6개 강좌

야간강좌
영어회화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퍼니 오감스쿨

아이가 꿈꾸는 「아이좋아」도서관
인형극 공연, 가족체험, DIY 책놀이 체험 등
찾아가는 책 이야기

마산합포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소통의 기술 하브루타 교실, 아크릴화 등 10개 강좌와 만들기로 배우는 역사교실 등 3개 강좌

기타 프로그램
지역문인특강 운영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읽는 국화축제

창원WORKER 소확행 도서관 / 드림캐쳐, 가죽공예, 라떼아트 및 데일리 메이크업 등

아이가 즐거운 도서관 / 캐릭터 팝아트, 오마마타 두루미 만들기, 국경일 기념 문화체험놀이터 3D펜으로 태극기 만들기 등

진해도서관

행사
테이블 인형극(조롱박흥부놀부, 그림자극해바라기) 9월 7일 14:00

책과 함께 보는 영화상영 9월 1일, 8일, 22일 14:30

잡지 플리마켓 9월 17일 ~ 18일 14:30~17:00

움직이는 도서관 홍보 및 체험 9월 18일, 25일 19:00~21:00

우리 가족 그림책 만들기 9월 21일(진해) / 9월 22일(동부)

독서퍼즐 9월 1일 ~ 22일

전시 및 연체자 특사 9월 1일 ~ 30일

문화강좌 프로그램
어린이강좌 유아독서미술 등 14개 강좌, 성인강좌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 등 5개 강좌, 다문화인을 위한 야간한국어교실 1개 강좌

기타 프로그램
도담도담 태교 프로그램

지혜의바다

행사
명사의 sea間(우리 고전 읽는 법) 9월 21일 14:00 / 구암홀

힐링공연(삼각관계밴드 공연) 10월 21일 19:30 / 구암홀

10월의 하늘(과학자들의 재능기부강연) 10월 26일 14:00

주말동화콘서트 11월 17일 11:00

명사의 sea間(윤필) 11월 26일 14:00

온 가족 보드게임 한판 12월 14일 14:00 / 더채움방

힐링공연(현악과 국악 콘서트) 12월 15일 15:00 / 지혜마루

기타 프로그램

세대공감 리딩북 : 목록배부, 전시, 대출이벤트, 유설화 작가, 김경희 작가, 서현 작가 강연

코딩실습, 스마트폰 영상제작 프로그램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 도시재생의 가치를 인문학적으로 발견

창원도서관

행사

도서관 이용자 교육 9월 7일 10:00 / 별관II 3층 세미나실

토요책동산(토탈 공예) 9월 14일 14:00

토요특강(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법) 9월 21일 14:00

인형극(아기코끼리의 소원) 9월 27일 15:00

도서관 이용자 교육, 토요책동산(사탕쿠키만들기)

토요특강 10월 19일 14:00

인형극(개와 고양이) 10월 26일 15:00

하반기 일상의 인문학 10월 12일 14:00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축제 MAMF(맘프) 10월 25일 ~ 27일

그림책 태교특강 10월 27일 10:00

토요책동산, 토요특강

인형극(담배괴물 한대만) 11월 23일 15:00

하반기 일상의 인문학 11월 23일 15:00

토요책동산 12월 14일 15:00

인형극(크리스마스캐럴) 12월 28일 15:00

하반기 일상의 인문학 12월 7일 14:00 / 별관1 시청각실

기타 프로그램

올해의 책 집중탐구-기획전시 8~10월

올해의 책 필사릴레이 8~10월

올해의 책 '나는 이렇게 읽었다' 서평코너 8~10월

독서로 마음을 치유해 주는 작가 초청 강연 10월 중

행복한 독후체험활동 9, 10월 중

진동도서관

행사

생태환경 관련 서정홍 시인 특강 9월 7일 14:00

인형극 9월 8일 15:00 / 강좌실1

그림책 작업실 9월 28일 9:00 / 강좌실1

원화 전시(꿈에서 맛 본 똥파리) 9월 1일 ~ / 1층 로비

2018경남독서한마당 전시 9월 30일 ~ 10월 17일

[마녀체력]이영미작가 특강 10월 19일 14:00 / 강좌실3

옛 그림 속 인문학 11월 9일 ~ 12월 7일 14:00

마산도서관

행사

가고파가족문화공연(갈라콘서트) 9월 7일 15:00 / 시청각실

박하익 저자 강연 9월 21일 10:00 / 시청각실

도서관 옆 숲 이야기 9월 21일 15:00 / 산호공원

성인을 위한 책갈피 클래스 9월 22일 10:00 / 강좌실3

2019독서릴레이'책으로 여는 특별한 날' 9월 22일 14:00

도서관 아는 만큼 즐기기 10월 6일 ~ 27 매주(일)

가고파가족문화공연(인형극) 10월 12일 15:00

47회 토요인문학특강(리얼인문학박소영대표) 10월 19일 14:00

제18회 시와 음악이 있는 시낭송의 밤 10월 30일 19:00

가고파가족문화공연 (인형극) 11월 9일 15:00

48회 토요인문학특강 (역사N교육연구소소장 '심용환') 11월 16일

가고파가족문화공연(크리스마스캐럴 공연) 12월 14일 15:00

기타 프로그램

제17회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 공모전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 마주보는 역사, 역사 속에서 삶을 읽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역사 바로알기' 등 18개 강좌, '창의영재 블록교실', '영어동화놀이터(A)', '코딩으로 상상하기' 등 4개 강좌, '귀염·뽀짝·청순메이크업', '행복한 책읽기, 즐거운 만들기' 등 3개 강좌

별빔도서관 프로그램

수요인문학특강

남지도서관

행사

김흥식 작가 강연 9월 7일 14:00 / 시청각실

인형극(숨바꼭질 도깨비) 9월 21일 15:00 / 시청각실

자유학기제 사서직업체험학교 강연 9월 5일, 26일

창녕도서관

행사

책 읽는 사진공모 9월 1일 ~ 29일 / 종합자료실

잠자는 책을 깨우다 9월 1일 ~ 29일 / 종합자료실

인형극(형님형님, 호랑이 형님) 9월 7일 15:00 / 시청각실

마술공연 9월 29일 15:00 / 시청각실

슈링클스 만들기 9월 21일 14:00

송편비누 만들기 9월 8일 10:00 / 강좌실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 매주(토) 11:00 / 유아자료실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원화 전시 9월 1일 ~ 22일 / 1층 로비

도서관에서 만나는 특별한 책 이야기 9월 1일 ~ 29일

사서추천도서 전시 9월 1일 ~ 29일 / 자료실 및 별관 게시판

창녕시네마 매주(일) 14:00 어린이자료실

생각키움 독서퀴즈, 책 제목을 맞혀라 9월 1일 ~ 22일

귀가 트이는 영어 노하우 10월 12일 14:00 / 시청각실

한 책 '나도 한 구절' 10월 1일 ~ 31일 / 종합자료실

한 책 '독서릴레이', 잡지 무료배부 10월 1일 ~ 31일

도서관에서 동양화를 읽다 10월 1일 ~ 27일 / 1층 로비

통영도서관

행사

독서의달 : 통도 100% 클리어, 그림책 「이상한손님」 아트프린트전, 북큐레이션, 할머니 할아버지 옛이야기 들려주세요, 꼼지락데이, 책이랑 놀자, 독서퀴즈, 가을에 읽어요(계층별 권장도서목록)배부, 청소년 책에서 진로를 찾다(진로독서목록) 배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신나는 예술여행 : 부모교육특강, 국악 공연, 클래식&어쿠스틱 밴드 공연, 마술 공연, 꼬물꼬물 체험부스 운영, 아트북 작가 도서관을 그리다 전시

인문아카데미(한국신화와 유럽신화) 10월 매주(토) 14:00

인문아카데미(가우디,안토다다오) 11월 9일 ,16일 14:00

기타 프로그램

무화과 농장 방문 및 무화과 잼 만들기, 고구마 수확 및 고구마 무스 만들기, 두부 만들기

평생학습 및 별밤 프로그램

클래식 동감, 세계사 산책, 미드 영어회화, 나도 바리스타 등

통영시립도서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 다문화 인형극 '론포포', 나만의 감성 수채화 책갈피&엽서 만들기, 추석맞이 말랑말랑 송편 만들기
9월 1일 ~ 30일 / 통영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 통영시립충무도서관 : 추석맞이, 엄마표 한복 머리띠&머리핀볼펜 만들기!,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경제교실, #해시태그 책 속 아름다운 통영을 찾아라!, 그림책 원화 전시, 2019학년도 교과수업 연계도서 목록 배부
9월 1일 ~ 30일 / 통영시립충무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 통영시립산양도서관 : 라탄소품 만들기, 책 표지 퍼즐 그리기, 과월호 잡지 배부, 대출 이벤트(5권 대출시, 추첨 통한 선물 증정)
9월 1일 ~ 30일 / 통영시립산양도서관

인문학콘서트(신명나는 삶과 행복, "아모르 파티")
11월 28일 19:00 / 통영시립충무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초급영어회화(Ⅲ), 해설이 깃든 영화교실, 다문화 북아트 / 통영시립도서관

오페라&컬쳐, 펀펀퍼니아트,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명화집 만들기, 창의팡팡 보드 도서관 / 통영시립충무도서관

마크라메 만들기, 맛있는 도서관 / 통영시립산양도서관

하동도서관

행사

책 사람을 읽다 9월 21일 / 11월 16일

인형극(알라딘과 요술램프) 9월 21일 / 시청각실

신나는 예술여행 9월 28일

만족도 설문조사 9월 5일

인형극(똥돼지왕 방구) 10월 12일 / 시청각실

도서관극장 10월 6일, 20일, 30일 / 11월 3일 / 12월 1일, 15일, 18일

도서관갤러리 9월 3일 ~ 28일 / 10월 4일 ~ 27일
11월 5일 ~ 27일 / 12월 1일 ~ 26일

인형극(크리스마스캐롤) 12월 14일 / 시청각

기타 프로그램

#Hashtag English, 다독다독 엄마 목소리, RNA영어동화책 읽어주세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명리학 입문, 한발짝 중국어, 오물딱조물딱 오감놀이, 자신감 독서스피치, 그리기의 즐거움

평생학습 동아리

책나무(초등), 가온(중등), 2PM, 주경야독, 느티나무, 토지 완독, 하동문협, 섬호인문학, 차꽃수필, 하동문학아카데미, 서금요법, 문학여행, 시낭송 동아리

함양도서관

행사

체질에 따른 약초의 효능 (인문학) 9월 7일, 21일, 28일 10:00

독서와 글쓰기 9월 25일 10:00 / 시청각실

레진 책갈피 만들기 9월 21일 / 시청각실

독서 부루마블 9월 4일 ~ 18일 / 어린이자료실

9월 작은 전시회 9월 3일 ~ 24일 / 로비

버블&블랙아트 10월 19일 14:00 / 로비

대한민국인문학(우리나라 역사 강연) 10월 12일, 19일, 26일

책 읽는 가족시상 11월 중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야기 수채화, 여행 영어 회화, 주역, 캘리그라피, 생활 속의 민화

함안도서관

행사

이민규 저자 특강 9월 중/ 3층 강좌실

함안도서관에 놀러와 9월 3일 ~29일 / 어린이·종합자료실

과년도 잡지 배부 9월 3일 ~ 29일 / 1층 로비

다독자 시상 9월 28일 / 관장실

도서관 속 인문학(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9월 중

도서관 속 인문학(함께 읽으며 떠나는 한국사여행) 8월 3일 ~ 11월 2일

김달진 시인의 문학세계와 진해 바닷길 여행 10월 중

행운팡팡 책읽기 10월 1일 ~ 27일 / 어린이·종합자료실

도서관 속 인문학(매화벽에빠진조희룡) 11월 10일

도서관 속 인문학(인문학으로만나는나의진로) 11월 중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특강, 사서 직업체험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림책 마음 테라피. 쉽고 예쁜 손그림, 창의력 미술교실, 인성이 자라는 어린이 푸드 테라피

합천도서관

행사

한문으로 풀어보는 인문학 9월 7일 ~ 28일 매주(토) 14:00

인형극(아빠가된늑대) 9월 21일 15:00 / 평생학습실

책 이름 퍼즐 맞추기 9월 10일 ~27일 / 종합자료실

등장인물 만들기 9월 28일 14:00 / 평생학습실

한책 원데이 클래스! 10월 20일 10:00 / 디저트카페

인형극 공연(사윗감 찾아 나선 두더지) 10월 12일 15:00

'딩동거미' 읽고 사탕으로 거미 만들기 10월 26일 14:00

책이름 끝말잇기 10월 8일 ~ 25일 / 종합자료실

한책 OX퀴즈 데이! 11월 16일 14:00 / 본관 1층 로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엄마아빠 책으로 놀아요, 생생 기초 영어, 아름다운 한땀한땀 손뜨개, 그림책과 함께하는 과학공작소, 동화나라 과학교실, 다같이 BOOK적BOOK적 , 책과 함께 행복찾기, 책으로 만나는 행복

NEWS

공공도서관 소식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다양한 접근점으로 서가를 구성하여 시민의 폭넓은 독서 활동을 돕고, 도서관 소장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 전시 및 이용자 맞춤형서가 운영**한다.
기획전시 주제를 '봄'으로 정하여 미활용 자료의 전면 배치로 소장 자료의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도서코너를 연중 운영 중이다.

- 다시 '봄' / 지난5년간 베스트셀러 소설
- 몰라 '봄' / 2018년 신착도서 중 미대출 도서
- 내다 '봄' /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직업 도서
- 새겨 '봄' / 책에 대한 책, 메타북 깊이 읽기

이는 적시 자료배치를 통해 이용자의 도서관 만족도 향상과 시민 독서력 강화를 위한 자료활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통영도서관이 **자가대출기를 설치**하며 자동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용자들은 이제 카운터에서 차례를 기다릴 필요없이 각 층 자료실의 입구에 설치된 자가대출기로 스스로 책을 빌릴 수 있다.
앞으로 이용자 교육 및 통도 100% 클리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대출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남지 도서관은 환경개선 공사 실시로 9. 23.(월)부터 12. 10.(화)까지 임시 휴관한다.
이번 환경공사를 통해, 석면제거, 내진설계, 바닥교체 등과 함께 이용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휴게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기간동안 소음, 먼지 및 이용자 안전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 시설이용과 도서 대출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며, 차량 출입도 전면 통제된다. 12월 중순 재개관과 함께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해도서관

장애인과 더불어 다독다독 도서관 운영

- **목 적** : 장애아동시설을 직접 찾아가 독서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사회성 발달에 기여
- **기 간** : 2019. 3. ~ 11.
- **대 상** : 진해지역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보배어린이집) 원아 6~7세반
- **내 용** : 사서, 연극인, 재능기부활동가가 참여하여 동화구연, 독후활동, 도서관견학, 문화탐방 등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진행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9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 운영 도서관으로 선정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2019. 책으로 행복한 진양도서관 [2019. 책행진]

1.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 **내　용:** 우리도서관 이용자들이 직접 선정한 일반 대상 도서 〈유머니즘〉, 어린이 대상 도서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를 함께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 **세부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북앤돌핀', 독서사진 콘테스트 '사소한 유머', 온&오프 백일장 '내가 장원!', 필사의 릴레이, 나의 라인 오렌지 책나무, 대출반납이벤트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마!', 나만의 브랜드 힐링 책가방! 등

2. 더 책, 더 행복

- **내　용:** 온 가족이 함께 책에 집중하고, 각 세대의 고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등 이용자가 책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심층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 **세부프로그램:**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고민접기 종이접기', '이럴 땐 이런 책', 독서여행 컨시어지 '가족 독서단', 독서공방 '추억돋는 독서달력', '가족책 the original'

3. 참ing(Charming) 진주

- **내　용:** 진양도서관만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주시의 브랜드 슬로건 참(CHARM)진주 실현에 기여함
- **세부프로그램:** 이명현 천문학자 특강, 독서사진이 영화관을 만났을 때, 테마가 있는 기획전시 '오! 진주', 나의 최애 영화를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우리 도서관의 그늘막 쉼터

하동도서관에는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예쁜 책 읽는 소녀상이 이용자를 반긴다. 공연 무대와 잔디가 깔려 있는 마당에서는 드론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물 뒤편, 앙증맞은 사슴 모양의 나무 사이로 놓여 있는 흔들 그네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그곳에서 그들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들의 만남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느티나무 주변의 대리석 의자 위로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차양막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9월 중 차양막 공사가 완공되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휴식과 명상, 독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도서관의 그늘막 쉼터는 더욱 빛나는 장소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우리도서관에는 책씨앗을 퍼뜨리는 '아빠 책울타리'가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황현경)은 그림책 읽어주기와 읽기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그림책 독서동아리 '아빠 책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다. 아빠 독서동아리 책울타리는 그림책을 읽고 어른들이 나눌 수 있는 감동과 치유,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다. 또한 어떻게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자녀와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공부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경남교육청-함안군, 함안도서관 확장 이전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7월17일 함안군청에서 함안군과 '함안도서관의 이전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조근제 함안군수가 참석해 함안도서관을 이전해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설립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함안도서관 이전 설립 및 운영 ▲함안군-설립비 중 10억 원 부담, 토지 무상 제공 등이다.

새롭게 이전해 갈 부지는 옛 함안IC(가야읍 도항리 211-10) 중 일부이며 부지면적 4,300㎡ 연면적 2,500㎡ 규모 상당으로 향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함안도서관이 새로운 부지로 이전 설립하면서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인 도서관 공간 조성으로 삶과 밀착되고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함안군의 독서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은 청소년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폭넓은 독서 경험 및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7월 6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독서캠프를 운영했다. 비경쟁독서토론은 기존의 경쟁방식의 토론에서 벗어나 스스로 토론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책과 대화하며,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독서토론이다. 토론 과정은 3단계로 ▶정직한 독자과정 ▶질문하는 독자과정 ▶토론하는 독자과정으로 명명해 각 단계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구성되었다. 인근 3개 도서관(의령, 진양, 진동도서관)이 함께하는 이번 독서캠프는 토론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비경쟁독서토론에 대해 배우는 사전활동 시간과 3개 도서관 회원이 모두 모여 토론하는 실제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마산도서관지혜의바다분관

지혜의바다, 틈새공간 활용한 품격있는 휴게공간 오픈

– 카페형 지혜쉼터·데크형 바다쉼터 조성 –

마산도서관지혜의바다분관에서는 도서관 내·외부의 틈새공간을 활용한 품격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7월부터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층 외부공간인 「바다쉼터」는 도서관 뒤편 기존 조경공간을 전체 테크형으로 구축하였고 대형파라솔, 그네, 벤치를 설치하여 가족단위, 친구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형 벚나무가 주는 계절별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는 쉼터로서 이용시간은 하절기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9시부터 17시까지이다. 2층 내부공간인 「지혜쉼터」는 본관 건물과 연결통로의 틈새 공간에 삼면을 유리로 오픈한 카페형 분위기의 핫트렌드 공간으로, 이용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혜의 바다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의 프로그램와 더불어 매력적인 쉴거리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경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도서관 옆 생활환경숲을 거닐다!

– 합천군 지원, 2019년 합천도서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완료 –

합천도서관은 도서관 건물 옆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합천군의 지원을 받아 생활환경숲으로 조성하였다. 새로 조성된 생활환경숲은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민들이 책을 읽고 거닐며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 숲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대표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24시간 도서대출서비스 시행」
– 도서관 운영시간과 관계없는 예약도서 대출서비스 실시
– 신간·베스트셀러 등 160권 비치

경남대표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도서관 본관 1층에 설치하고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일반자료실 소장도서를 24시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서예약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남대표도서관 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을 받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후 회원증을 이용하여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하면 된다.

도서를 예약신청하면 다음날(도서관 업무일 기준) 스마트도서관에 도서 비치 및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 발송 후 3일이내에 스마트 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하다.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도서관 본관 및 별관 시설 재배치 및 리모델링

1. 목 적: 도서관 이용자의 쾌적한 독서환경 및 직원들의 보다 나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본관 및 별관 시설 재배치 및 리모델링 실시

2. 기 간: 2019. 7. 8.(월) ~ 10. 10.(목) [약 3개월간]
※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재개관일: 2019. 10. 11.(금) 예정

4. 주요 내용

- 본관 2층 관장실, 행정실 → 별관 1층으로 재배치
- 본관 1층 사서실 → 별관 1층으로 재배치
- 본관 2층 자유학습실 → 별관 2층으로 재배치
- 별관 1층 어린이자료실 → 본관 1층으로 재배치
- 본관 2층 자유학습실 → 강좌실, 연구실로 리모델링 후 활용
- 본관 2층 관장실, 행정실 → 북카페로 리모델링 후 활용



창원시도서관사업소

2019 창원 북-페스타

- **일　　시** : 2019. 10. 12.(토) ~ 10. 13.(일) 2일간
- **장　　소** : 성산아트홀 일대
- **참여대상** : 시민
-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 다양한 독서문화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창원시 종합 독서문화 축제로 40여 개의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운영

양산시립도서관

2019년 5월 어린이자료실의 도색이 벗겨진 서가 및 도서관 내부를 도색하고 소파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가를 추가로 구입하여 보다 많은 도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자료실 내부 모자열람실 벽면에 유아용 스티커를 붙이고, 낡은 소파 시트를 유아용 소파 시트로 교체하여 아동친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 후 자료실이 이전보다 어린이자료실다워졌다는 이용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진주시립도서관

노후화된 연암·서부도서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공사 추진
– 장애인 승강기·북카페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 중심지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진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암·서부도서관의 내진보강과 함께 리모델링공사를 5월부터 추진하고있다. 시는 지난해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균형발전 특별회계 8억 원을 교부받아 자체 재원과 함께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먼저 공사가 진행될 연암도서관은 연면적 2,414.2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986년 준공된 공공도서관으로서 1일 1,000명을 상회하는 도서관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자료 확충 기반 증설과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서관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내진보강으로 시설안전성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적인 공간 구성과 함께 북카페, 장애인용 승강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종합·어린이·참고자료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도서관 1~2층을 통합 개편해 자료실을 확충하고 편안한 독서 공간과 함께 더 많은 좌석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엘리베이터 설치와 자료실 내 좌석 확충 등으로 편안한 독서공간 조성은 물론이고 북카페, 테마자료실(연암기념공간), 독서토론방 설치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SOC 공모사업 등에 함께 선정된 서부도서관의 리모델링은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암도서관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추진된다.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변화하는 시대와 동행하는 독서 매체의 다양화,
우리 도서관의 소리 책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책을 읽는 방식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독서 문화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은 전자도서관, e-book 등의 디지털화로 대표되고, 이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체의 다양화다. 보는 것으로 시작한 책 읽기는 듣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더 책 코너"는 소리나는 책들이 내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들부터 시각적인 문제로 책을 읽기 힘든 계층까지 "더 책 코너"에서라면 누구나 책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더 책 코너"의 책들은 "책소리" 기계나 어플을 설치한 휴대폰을 책 위에 올려놓으면 내용이 재생된다. 책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로 재생되는 이야기에는 상황에 맞는 효과음은 물론이고 배경음악이 곁들여져 한층 몰입감을 높여준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다르게 종이 책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책의 전진에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도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소리 책을 당신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도서관 외벽공사 및 외부 펜스 교체 작업

- **일 시**: 2019년 8월~10월
- **사 유**: 외벽변색 및 펜스 노후화
- **내 용**: 외벽 판넬공사, 펜스 교체, 파고라 설치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숲으로 간 도서관

함양도서관은 아이들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껴볼 수 있도록 3월에서 12월까지 4계절에 걸쳐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봄 절기에 대해 배웠고, 천년의 숲 '상림'에 나가 겨울잠에서 깬 곤충들과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들을 관찰해 보기도 했다. 여름이 시작된 6월부터는 여름 절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이제 곧 봉선화에 꽃잎이 달리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렸을 적 했던 것처럼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는 체험을 할 예정이다. 가을과 겨울에도 각각의 절기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계속 변하고 있었지만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계절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한다.



남해화전도서관

화전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8월 한 달간 화전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생각하는 독서교실, 사고력 수학보드, 내 손으로 칼라클레이, 발레교실, 아이돌 댄스교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언제든지 어린이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린이자료실은 8월에는 휴실 없이 쭉~ 문을 열어놓았다.

여름방학 '우리아이를 부탁해'

방학동안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아이를 부탁해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글도 써보고, 토론도 해보는 방학 맞춤 프로그램이었다.

거제시립장평도서관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선정 및 치매극복 선도도서 코너 마련

•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사회 치매정보허브를 구축하고자 거제시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도서 86권을 기증받고, 관련 코너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 중앙치매센터로부터 매월 치매 신간도서 목록 및 우수 치매도서 목록을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거제시립하청도서관

환경과학 마술극 '지구는 내 친구' 행사 개최

• 〈문화가 있는 날 – 동동동 문화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 3일(토) 11:00 2층 대회의실에서 환경과학 마술극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우듬지가 방문하여 '지구는 내 친구'라는 주제로 공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과학실험과 마술, 손유희에 참여하여 우리 지구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Northern Europe

북유럽 도서관 연수기

2019. 6. 16. ~ 6. 23(6박 8일)

중앙도서관 이부복



스웨덴



시스타 도서관(Kista Bibliotek)

Kista Galleria(쇼핑몰) 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2014년 개관하여 2015년 IFLA에서 최고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스타 지역은 인구 79%가 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거나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타도서관도 다문화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한다. 2,400㎡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한 층의 큰 열린 공간으로 라운지·학습·독서·아동·컴퓨터 영역 등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연령, 계층의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공간 구성이다.

웁살라 대학도서관 (Uppsala universitetsbibliotek)

구스타프II 아돌프가 1477년 학교 설립하고 1621년 도서관 건립, 1841년 현재 위치에 새롭게 개관하였다.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15세기부터 고서를 500만 권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전통적인 자료 보존 도서관 기능과 현대적인 이용행태의 변화에 맞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열린 도서관 철학으로 서비스 확대에 주목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스톡홀름 시립도서관 (Stockholms Stadsbibliotek)

1928년 스웨덴의 저명한 건축가 에릭 군나르 아스푸룬드가 설계한 도서관으로 건축미가 뛰어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건축으로 유명하다. 외부의 대형연못과 정원은 스톡홀름 모든 시민이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명소이며 도서관 건축의 일부로써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짧은 시간 내에 리모델링과 공간 다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립 초기부터 외부와 도서관 건축물과의 여유로운 공간 확보와 조화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했다.





쿨투어후셋 도서관(Kulturhuset Bibliotek)

쿨투어후셋 문화 회관(Kulturhuset Stadsteatern)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문화 기관 중 하나로, 세르겔 광장에 위치한다. 건축가 피터 셀싱(Peter Celsing)에 의해 설계, 1974년에 완공되었으며, 이 건물은 스톡홀름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물로 평가되는데 쿨투어후셋 도서관은 쿨투어후셋 문화 회관의 극장, 전시회장 등 다른 시설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스웨덴 국립(왕립)도서관(Kungliga Biblioteket)

16세기 트레크로노 왕궁에 바사 왕의 도서 컬렉션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시작해 1878년 후믈레가든으로 이전하여 개관하였다. 스웨덴어, 스웨덴에서 발행된 자료, 스웨덴 관련 자료, 스웨덴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타국에서 발행한 도서까지 수집하는 등 스웨덴 관련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필사 도서인 '악마의 성경'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도서관(Helsingin Yliopiston p kirjasto)

핀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 대학 도서관으로 4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우며 15세 이상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헬싱키대학도서관의 중앙도서관은 캠퍼스 내부이면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편리한 공간이다. 도서관 로비와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좋은 장치인 듯하다. '개방성'을 추구하는 도서관답게 건물 전체가 공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건축적 특징이며, 이러한 점은 실제 서비스도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한 듯하였다.

핀란드 국립도서관(Kansalliskirjasto)

헬싱키 대학교의 일부로 시작하여"헬싱키 대학교 도서관"으로 명명, 2006년 8월 1일"핀란드 국립도서관"으로 개명하였으며,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학술 도서관이다.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작품을 모두 모아 컬렉션을 만드는 등 핀란드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자료의 아카이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제국 당시 출판된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디도서관(Oodi Helsingin Keskustakirjasto)

20년간 준비하여 2018년 12월 개관(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하였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잘 보여주며 1층에는 영화관 및 카페, 2층에는 창조 공간, 3층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3층 공간 일명 Book heaven 공간은 일반적인 자료실 느낌은 아니었다. 공간이 매우 넓었으며, 3층에 위치한 일명 시민의 발코니라는 공간은 반대편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눈높이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 의미는 '시민과 의회는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역시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도서관의 가치 또한 시민들이 깊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또한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가기 위해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의 구조였다. 이런 뿌리 깊은 북유럽의 도서관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도서관 문화도 역사를 더해갈수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발전해 나가리라고 기대 할 수 있었다.

이번 6박 8일간의 연수를 통해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으며, 선진도서관 탐방의 경험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서들과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모든 이야기가 소재가 되고 누구나 작가가 되는 독립출판

사람들은 알랭드 보통의 책에서만 감동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유시민의 책에서만 세상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고, 서툰 문장으로 담아낸 진솔한 고백에서 위로받기도 한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독립출판은 몇 권밖에 팔리지 않더라도 그 가치는 베스트셀러 못지않다.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 출판업계가 울상을 짓는 가운데서도 독립출판물을 찾는 독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까

우리가 어떤 단어 앞에 '독립'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 즉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독립출판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의 출판 관행이 출판사의 깐깐한 대중성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면, 독립출판은 작가 스스로 글감을 찾고 글을 써서 책을 내는 것을 말한다. 자본에 기대지도, 상업성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담고 싶은 형태로 담아낸다.

독립출판이 인기를 끌게 된 데는 플랫폼의 발전이 한몫을 했다. 이제는 컴퓨터로 글을 쓰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완성된 디자인을 인쇄소에 맡기기만 하면 책을 만들 수 있으니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으로 무장한 독립출판

독립출판은 대중성과 상업성이라는 잣대로 재단된 내용이 아닌 만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경찰관의 이야기, 우울증 극복 이야기, 다큐멘터리 제작기 등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책으로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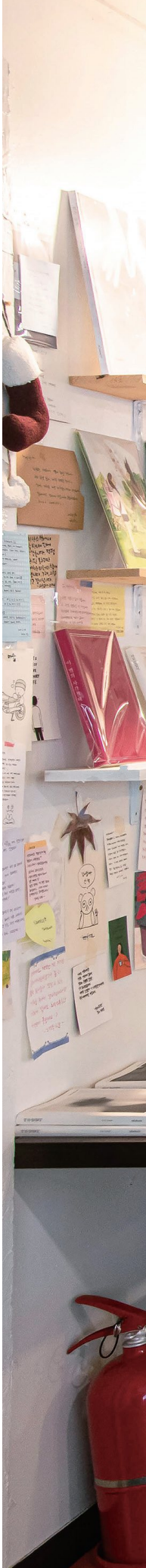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문장이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표지 디자인이 깔끔하지 못해도, 좋은 종이를 써서 반듯하게 만들지 않아도 독자들은 작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오히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낸 독립출판은 우리 출판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독립서점을 통해 세상과 만나다

독립출판물이 많이 출간되면서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독립출판물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인터넷 서점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ISBN을 받지 않고 작가가 직접 독립서점에 입고 신청을 해 책을 유통시킨다.

이처럼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은 서로 공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립출판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형 서점에서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책을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발품을 팔아 독립서점을 찾는 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지역의 여러 독립출판물 서점 중에 창원에 있는 두 곳을 둘러보았다.




Carrier
SENTI
SENTI
SENTI
FRESH ART NEW YORK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 [책방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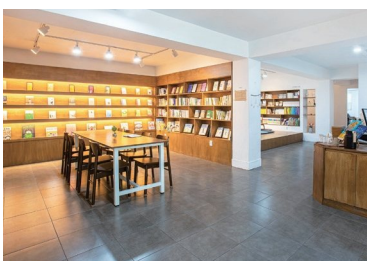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책방 산·책]. 이곳은 독립사진작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많은 독립출판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책 만듦새부터 작가, 제목,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옆으로는 독립출판물 작가들이 직접 보내온 감사의 메모가 빼곡하게 붙여져 있다.

[책방 산·책]의 책방지기 박승우 씨는 이 많은 책을 어떻게 다 모았을까.
"독립출판 작가에게서 입고문의가 들어오면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이 돈이 될 만한 책인지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어떤 책은 출판되고 어떤 책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이라는 형태로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선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별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승우 씨는 세상에 쓸모없는 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꼭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아도, 필요한 몇 명의 사람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준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책은 없어요. 아무리 조악한 책이라도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책을 내 볼까' 생각하고 실제로 시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 내기가 쉬워지는 세상, 누구나 책을 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세상, 출판의 문턱을 낮추는 세상을 위해 독립서점 [책방 산·책]은 앞으로도 문을 활짝 열어 둘 것이다.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 [주책방]

창원 성산구 사파동 주택가에 있는 동네서점이자 독서공간인 [주책방]. 외진 곳에 위치한 책방이지만 찾는 사람이 꽤 많다. 책방지기 주선경 씨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과 시집, 소설책과 함께 '독립출판물'을 따로 정리해 놓은 서가도 눈에 띈다. [주책방]은 엄밀히 말해 독립서점은 아니다. 그저 책방지기가 직접 고른 책들, 관심 있는 책들을 골라 서가를 채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립출판물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저는 독립출판과 기성출판을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독립출판의 수준을 문제 삼는데 사실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이 맞지 않아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향이 맞아서 찾으시는 독자들도 계시거든요."





[주책방]은 매달 판매한 책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여자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겪은 일을 쓴 에세이 〈경찰관속으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관속으로〉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했는데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독립출판물도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책방]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독립출판물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독립출판물은 글을 쓰고, 그 글이 책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덜 탔으니 그만큼 작가의 고민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독립출판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홍화정 | 자기만의 방

일러스트 4컷 그림에세이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일기에서 가져온 이야기.
마음의 무게로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상들. 그림일기를 보는데 자신의 그림일기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한 이야기를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서 고생합니다

임수희 | 수이출판

'사서 고생하니까 사서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하지만 이용자는 사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데스크에 앉아서 책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서의 눈으로 보는 도서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



브로드컬리 편집부 | 브로드컬리

퇴사하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과연 행복할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누구나 힘들면 생각하는 퇴사, 그리고 결국 퇴사하고 각자 고민하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퇴사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술

김혼비 | 제철소

주(酒)류 작가를 꿈꾸는 김혼비의 술책.
'술을 좋아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며, 술에 관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술술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술렁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술이 그렇게 생각날 수 없어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서 즐거운 경험

수면 아래 움직이는 오리발처럼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송성만**

나는 남지도서관에서 이제 한 달 남짓 일하고 있는 사서대체직원이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내가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바꿔놓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공간'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도 도서관은 조용하고 여유가 넘치는 공간이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나 또한 그랬다. 도서관의 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지난 6월 말, 나는 우연히 남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접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서대체직원으로 뽑혔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의 도서 대출이나 반납처리, 그리고 책 정리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었고, 나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익숙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예전에 대학교 박물관에서 몇 년간 행정업무를 도맡았던 경험도 있어서 도서관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 쉽게 적응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선 도서 대출이나 반납, 책 정리 같은 일들은 도서관 업무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직접 찾아드리거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리거나 야간대출, 도서예약 등의 신청을 받는 것 같이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업무들이 여럿 있어 하나하나 기억하고 배워야 했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해서 책을 찾고 포장하고 우체국으로 운반하는 등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일에도 익숙해져야 했으며,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획과 시행에도 도서관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했다.

내가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공간'인 도서관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고요히 강을 떠다니는 오리는 겉으로 매우 평온하지만 수면 아래의 발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이 바로 그런 공간인 것 같다. 도서관 직원들은 수면 아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리의 발'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다시 도서관의 이용자가 될 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도서관의 '오리발'들에게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신규 사서 때 진행한 독서교실의 추억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배주완**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가 올해로 벌써 8년째다. 신규사서로 잔득 긴장한 채 첫 출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문득 '도서관에서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다.

신규사서 2년 차에 어린이자료실 담당으로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했을 때다. 보통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대부분의 수업을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한다. 하지만 독서교실을 몇 번 운영한 후 한 번은 '전문강사 대신 내가 직접 수업을 하는 건 어떨까?'란 생각을 했다. 이내 큰 마음을 먹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다.

독서교실 주제를 꿈과 진로 쪽으로 정하고 컬러클레이를 활용한 좌우명 만들기,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멘토 찾기 등으로 수업 일정을 짰다.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느껴보지 못했을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직접 수업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름을 전부 외울 수 있었다. 4일 동안 운영된 독서교실에서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학생들도 나를 잘 따라와 즐겁게 독서교실을 마무리했다. 독서교실이 끝났을 때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마음과 정이 든 학생들과 헤어져야 할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 즐거웠던 기억을 생각하니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그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친구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우리아이를 부탁해' 참여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느낀 생각들

남해 화전도서관

〈내가 도서관에서 즐거웠던 순간〉

- 도서관에서 과자 먹을 때!
- 아이클레이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을 때!
- 20대 후반 나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때!
- 시 따라 쓰고 읽었을 때!
- 새 만화책을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
-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빅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시리즈 책을 차례대로 읽었더니 정말 재미있었다.
- 클레이 같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게 준 또 다른 인생수업

진영한빛도서관 **신혜경**

그림책이 좋아 아이들과 무작정 도서관 자리 차지한지 어언 십 수 년. 그렇게 맑은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 앉은 벤치에 그림자 늘어지듯 내 사랑스런 아기들은 다 커버렸고 난 갑자기 백수가 돼버렸다. 어영부영 늙어버릴 것만 같아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던 차에 자주 다니던 한빛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인문학 강연과 함께 탐방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수업의 보조 선생님을 하게 되었다. 며칠간만 하는 일이라 아쉽긴 했지만 수업이 재밌기도 하겠다 싶어 참여하게 됐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셨다. 내 나이로 어디 가서 이력서 한 장 못 내밀겠다 하고 있는 찰나 나보다 많은 나이 그룹에 속해져 버리다니. 오늘은 2회 수업에 이어 탐방 나가는 날. 버스도 대절되어 있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나눠드릴 이름표를 들고 서있는 내게 그분들이 "선생님~~" 하며 귀엽게 불러주시고, 야외이동할 때 "횡단보도로 이동해주세요!" 하면 "네~ 그래야죠" 하며 대답도 잘해주시고, 가이드 잘한다며 싸오신 간식도 나눠 주신다. 뭐지?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깊은 학식과 넓은 견문으로 사회와 역사에 관해 수업해주시는 강사님과 조근조근 말씀을 나누신다. 뭐지? 내가 철학자, 인문학자들과 다니는 건가?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있는 게 제일 편했던 나를 이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나로 봐주신다. 그냥 보는 눈길에서 칭찬도 격려도 느껴진다. 편해졌다. 좋아하던 그림책 중에 "나는 할머니인걸."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할머니의 99번째 생일날, 고양이가 사온 양초는 겨우 5개. 그때부터 5살이 된 할머니는 "왜 진작 5살이 되지 않았을까?"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의 새로운 생활도 이제부터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업이 내게 준 또 다른 인생수업이었다.

꿈꾸는 엄마로 사는 법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이희경 (이용자)**

요즘 주위의 아이 하나,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내 또래 엄마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고 난 후 같은 아파트 엄마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하며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의 반 이상이 훌쩍 지나버리는 모양이다. 이런 데서 발견하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도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 행복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아이가 커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엄마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아이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가정형편이나 여러 상황으로 포기해야 했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내 앞에 놓여있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 올해 마산도서관에서 수강한 글쓰기 수업인 〈나를 위한 글쓰기, 마음 쓰기〉는 꿈꾸는 엄마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행복이자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는다. 엄마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해보고,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꿈꾸는 엄마의 행복플랜'을 만들어가며 삶의 행복을 느껴보길 바란다. 도서관은 그 꿈을 향한 길을 함께 해줄 멋진 친구가 될 것이다.

장맛비 속에도 즐거운 인문학 탐방!
비가 와도 즐겁도다, 인문학 탐방!

칠암도서관 이지아(사서)

여름 장맛비가 시작되었다. 몇 십 년을 한국에서 살아가는데도 매번 여름의 더위에 놀라고 만다. 이번에는 장맛비에도 놀라고 말았다. 6월 29일 토요일에 딱 장맛비가 예정되다니 이런 낭패가 있단 말인가. 그날, 비가 절정으로 치닫기로 예정된 날에 우리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탐방 신청을 한 도서관 이용자 누군가는 볼멘소리로 비도 온다는데 날을 옮기면 안 되냐고 하셨고, 또 누군가는 비 오는 날 탐방이 더 정취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하셨다. 내가 이용자였다면 호기 있게 후자처럼 말하겠지만, 날도 더운데 거센 장맛비까지 안고 사서로서 이용자들을 이끌고 탐방을 가야 한다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래도 탐방은 예정대로 가기로 했다.

문제의 탐방일 아침, 혹시나 비가 비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6월 29일을 맞이했으나, 하늘은 회색빛으로 잔뜩 어두운 얼굴을 하고 비는 예정대로 잘도 내리고 있었다. '역시나 그렇지, 하지만 오늘은 즐거운 탐방을 마치고 올 거야! 라고 다짐하며 택시를 불러 도서관까지 단번에 갔다. 먼저 와 있던 탐방 보조 학생과 함께 이용자들 간식을 챙기고 도서관 로비에서 그분들을 맞이하였다. 시간이 다 되어도 몇몇 분이 안 오셔서 애를 태우다가 출발 예정 시간 조금 지나서 차량에 모두 들어올 수 있었다. 인원 체크를 하고 나서야 맨 앞자리 구석에 몸을 구겨 넣듯이 앉았다.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용자분들은 나들이 가는 소녀들처럼 들떠 보였다. 떡이며 음료를 드시며, 소설 깡깡이를 쓴 한정기 작가의 깡깡이 마을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40분 정도 차를 달려 깡깡이 예술 마을에 도착했다. 색색깔의 우산을 쓰거나 바람에 펄럭이는 우비를 입고서, 어미닭을 따르는 병아리마냥 작가님을 따라가는 이용자들. 깡깡이 마을로 가는 다리를 건널 때 보니, 먼데 선박과 포구의 모습이 빗속에서 아스라한 것이 그림처럼 보였다. 중학생 아들과 같이 온 이용자는 거기서 몇 번이고 사진을 찍고 혼자서 진지하게 풍경을 담는 이용자도 보였다. 마을 초입에서는 모두 독일 작가가 그렸다는 깡깡이 아지매 대형 벽화를 감탄하며 보았다.

점심을 맵싸한 낙지볶음으로 맛나게 먹고선 그날 탐방의 절정이었던 영도대교 도개식을 보러 갔다. 한눈에도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이나 타지인들과 섞여 도개식을 보는데 절로 "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들렸다. 수평으로 굳건하게 지나는 차량을 받쳐주던 큰 다리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수직으로 서니 갈매기들이 날아간다. 우산을 받치고 빗길을 철벅철벅 걷던 힘듦도 곧 다 잊어버린 듯 이용자들 얼굴에는 저마다 큰 미소가 걸렸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만히 물어봤다. 대답을 안 들어도 그 얼굴이 내게 답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내년에 또 이런 탐방을 기획한다면 장맛비는 피해서 일정을 잡으리라.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순간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김지원(사서)**

김해도서관 어린이실 문을 열면 바로 왼편에 있는 사서 데스크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을 반깁니다. 그리고 데스크 맞은편엔 노인장애인실이, 자료실 제일 안쪽에는 유아자료실이 있어 어린이자료실에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오는 유아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자료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김해도서관 사서입니다.

책을 한 권만 대출해드려도 너무 고마워하는 어르신을 만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하편을 읽다 보니 상편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다시 상편을 빌리러 온 할아버지, 노래 교실 오셨다가 우연히 방문한 노인장애인실에서 큰글 도서의 매력에 빠져버린 할머니 등 어르신들은 그냥 책만 빌려가는 법이 없이 데스크 앞에 선 채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책을 고른 시간보다 대화한 시간이 훨씬 길기도 합니다.
일이 쌓여 있을 때는 멈출 줄 모르는 대화가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냥 말을 나누고 있을 뿐인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마냥 저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을 대할 때입니다.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읽은 책을 확인 받기 위해 데스크로 찾아올 때가 많은데 아이가 포트폴리오용 공책을 들고 올 때면 제 쪽으로 와주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들은 책에 관한 퀴즈를 풀어야하기 때문인지 온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로 오는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쉽게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절대 혼자서는 답을 말하지 않겠다며 부모님까지 대동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듯 데스크 밑으로 숨어 버려서 저는 공허하게도 허공에다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고 민망한 사이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 마주보며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히고, 함께 기뻐하게 되었을 때 저는 퀴즈를 맞힌 아이만큼이나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부끄럼 없이 퀴즈용 책을 들고 당당하게 저에게로 걸어오는 아이를 맞이하는 건 제가 어린이자료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아는 이용자가 한 명, 한 명씩 늘어갈 때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보람을 알아갑니다. 김해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경험을 하나 둘 쌓을 때마다, 제 마음에도 즐거운 경험이 하나 둘씩 쌓입니다.
이런 행복한 기억들이 이용자가 계속 도서관을 찾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도서관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도 저는 김해도서관에서 저를 찾아와 함께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갈 이용자를 기다립니다.

경 남 지 역
공공도서관

거제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http://gjlib.gne.go.kr
	거제시립수양도서관	639-3891	http://www.lib.geoje.go.kr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3881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639-3871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61	
	거제시립하청도서관	639-3921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http://gclib.gne.go.kr
고성군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http://gslib.gne.go.kr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www.goseong.go.kr/gslib
김해시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http://ghlib.gne.go.kr
	김해기적의도서관	330-4651	http://lib.gimhae.go.kr/
	김해장유도서관	330-7461	
	김해진영한빛도서관	330-4831	
	김해칠암도서관	330-4591	
	김해화정글샘도서관	330-2991	
	김해율하도서관	340-7161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http://jylib.gne.go.kr
남해군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3	http://nhlib.gne.go.kr
	남해화전도서관	860-3871	http://lib.namhae.go.kr/
밀양시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http://mrlib.gne.go.kr
	밀양시립도서관	359-6026	http://www.myclib.or.kr
	밀양시립영어도서관	359-6045	http://eng.myclib.or.kr/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391-1848	http://hnlib.gne.go.kr
사천시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http://salib.gne.go.kr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855-8853	http://elc.sacheon.go.kr/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835-4436	http://scplib.gne.go.kr
산청군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3-2544	http://sanlib.gne.go.kr
양산시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56	http://yslib.gne.go.kr
	상북어린이도서관	392-5936	http://lib.yangsan.go.kr/
	양산시립도서관	392-5900	
	양산영어도서관	392-5940	
	양산웅상도서관	392-5950	
의령군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http://urlib.gne.go.kr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2	http://jinlib.gne.go.kr/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http://lib.jinju.go.kr/
	진주서부도서관	749-5983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창녕군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http://ysl.cng.go.kr/main/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http://nj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http://cnlib.gne.go.kr
창원시	경남대표도서관	254-4811	http://lib.gyeongnam.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21	http://ms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252-3860	http://jh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5	http://jd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78-2831	http://cwlib.gne.go.kr
	고향의봄도서관	225-7371	https://lib.changwon.go.kr
	내서도서관	225-7481	
	동부도서관	225-7531	
	마산합포도서관	225-7441	
	마산회원도서관	225-7471	
	명곡도서관	225-7321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225-7492	
	진해도서관	225-7511	
	상남도서관	225-7411	
	성산도서관	225-7391	
	의창도서관	225-7331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http://www.jhml.or.kr
통영시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3	http://tylib.gne.go.kr/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http://www.tongyeonglib.or.kr
	통영시립산양도서관	650-2500	
	통영시립욕지도서관	650-4580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하동군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81	http://hdlib.gne.go.kr
함안군	함안군립칠원도서관	580-3643	https://www.haman.go.kr/chilwonlib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http://hmlib.gne.go.kr/
함양군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963-3186	http://hylib.gne.go.kr/
합천군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932-0521	http://hclib.gne.go.kr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